



Analyst
구경희
kh.koo@sk.co.kr
02-3773-9083

증권

2020-06-25

주식 양도차익 과세, 증권사에는 부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은 과세하는 반면 주식거래세는 인하될 예정.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회전율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규 주식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거래세 인화로 매매회전율을 높일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증권사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크다고 판단. 다만 현재로서는 공식 내용을 알 수 없어, 정부 보도자료가 나온 후 다시 코멘트할 예정

주식 양도차익은 과세하고, 주식거래세는 인하할 예정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항목을 신설해, 연간 2,000 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을 이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반면 주식거래세는 현 0.25%에서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과세 방법이 글로벌 기준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평가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는 투자자가 보유한 금융자산 내에서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클 전망

증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주식거래세 인화로 인해 거래회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국내주식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갖고 있던 장점(비과세)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현재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판단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세의 인화로 인해 매매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인 반면,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식 보도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코멘트할 예정

다만 현재로서는 언론 보도만 있고 기획재정부의 공식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명확한 세율, ▶종합소득과세와의 연계 방안, ▶이월공제의 정확한 방법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명확한 정보의 부재는 증권주 투자 판단에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현재로서는 증권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기획재정부의 정확한 보도자료가 나온 후 다시 코멘트할 예정이다.

Compliance Notice

- 작성자(구경희)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0 년 6 월 25 일 기준)

매수	87.05%	중립	12.95%	매도	0%
----	--------	----	--------	----	----